광주 '동구 인문학당' 이용자 증가 불구 접근성 '불편'

2022년 개소 후 누적 방문객 1만여명 전용주차장 없고 입구엔 주정차 즐비 區 "안내판 설치 확대 등 혼선 최소화"

"고즈넉한 분위기, 다양한 콘텐츠 모두 마음 에 드는데, 안 그래도 주차가 힘든 동명동에 전 용 공간도 없고 출입구 통행도 불편해 아쉬워

광주동구'인문학당'이 개소후 3년 반동안주 민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지만, 전용 주 차 공간 부족 등 접근성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동구에 따르면 동명동 83-3에 위치한 복 합문화공간 동구인문학당은 해당 부지에 있던 근대가옥을 리모델링해 지난 2022년 1월 개소 했다.

1953년 건립된 이 가옥을 당초 동구는 철거하



8일 오후 동구 인문학당 인근. 인문학당 통행로인 골목에 차들이 주차돼 있어 방문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안재영 기자

고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려 했으나, 각계 전문가 와 주민들이 보존 요구 의견을 제시해 활용 방안

을 모색한 끝에 지금의 인문학당을 조성했다. 크게 본채, 인문관, 공유부엌으로 나뉘는 인문 학당은 법정 공휴일과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되며 사전 신청 을통해 공간 대여도 가능하다.

3년 반 동안 인문학당에선 ▲인문학 강연 ▲북 토크 ▲주제별 도서 큐레이션 전시 ▲지역 예술 인 협업 전시 등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이 진행 됐다.

최근에는 환경, 음악 등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 이 연이어 개최되면서 콘텐츠 확장성이 날이 갈 수록 높아진다는 호평을 받았다.

인문학당의 방문객 규모도 해가 지날수록 상 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2천537명이었던 방문객은 2023년 38% 이상 증가한 3천524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의 경우 이보다 12.17% 늘어난 3천953명이 다녀갔

하지만 아직까지도 별도 주차 공간이 마련되 지 않아 방문객들이 접근성 불편 문제를 제기하 며 아쉽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유일한 통행로인 골목에 불법 주정차가 즐 비해 오가는 게 여의치 않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

인문관을 주로 방문한다는 학동 주민 최모(50 대)씨는 "걸어오기엔 멀어 차를 가져오는데, 올 때마다 주차 공간을 찾는 게 일이다"며 "자주 오 는 사람이야 위치를 알지만, 처음 오는 분들은 차량이 입구를 가려 찾아오는 걸 힘들어한다"고 전했다.

동구역시이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있으나 동 명동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의 마무리 시점이 올해 12월로 예정돼 불편을 당장 개선하긴 어렵 다는 입장이다.

동구 관계자는 "완공된 행정복지센터 부지 주차장을 인문학당과 함께 사용하는 방안으로 주차 공간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며 "이용 자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 설 치 확대와 온라인 홍보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 혔다. /안재영기자

5·18 행불자 가족 '위자료 증액' 판결

손배소 항소심…광주고법, 2억 산정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 된 청년의 가 족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 증액 판 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민사2부(박정훈 고법판사)는 A씨 의가족이국가를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 증액·변경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가 산정한 위자료는 2억원으 로, 1심보다 8천만원 늘어났다.

1955년생인 A씨는 1980년 5월21일 동구 금남 로 부근에서 계엄령에 항의하고 민주화를 요 구하는 시위에 참여하다 실종됐는데, 그로부 터 18년이 지난 1998년 7월29일 행방불명자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5·18 보상법이 보상금 지급을 통해 관련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목적의 하나로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2억 원으로 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광주고법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광주 법원에서 인정한 5·18 손해배상 위자료가 다른 지역보다 적다는 지적 후 잇달아 증액 판결을 내리고 있다.

"곰탕드시고 힘 내세요"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8일 오전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임동봉사 관에서 봉사단원들이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나주곰탕을 대접하

고 있다.

/김애리기자·조영권 인턴기자

광주 자원회수시설 건립 갈등 지속

구의원·주민 등 "백지화" 촉구

광주시의 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국강현 광산구의원은 8일 오전 10시 광주시의 회에서 광산구 삼거동 주민과 함평 군민 등 20 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광주시 광역자원회수시 설 입지 선정 전면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 어 "광주시는 지금까지 진행된 절차를 전면 무 효화하라"고 주장했다.

국의원은 "폐기물시설촉진법시행령상입지 선정위원회 주민 대표는 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광주시는 5개 자치 구별로 1명씩 선정했다"며 "뒤늦게 2명을 추가 위 촉했으나이는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 중 실제 후보지 주변에 거주 하는 주민은 2명 뿐"이라며 "절차적 하자로 입 지 결정 취소 처분이 내려진 마포구 사례와 동 일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입지선정위원회가 직접 후보지 타당 성 조사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해야 하는 데 광주시에 위임해 절차를 어겼고 위장 전입 의 혹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광주시 는 즉각 입지 선정 절차를 중단하고 지금까지 진 행된모든절차를무효로해야한다"고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위장 전입은 통 장 조사를 통해 확인했고 타당성 조사 기관 선 정은 위원회가 시에 위임한 사안이라 법적 문제 가 없다"고 설명했다.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함평 군민들

은 오는 14일 광주시청 앞에서 400여명이 참여 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계획이다. /주성학기자

'진학·경기 출전' 빌미 수천만원 챙긴 초등야구부 감독 첫 재판서 혐의 시인

중학교 진학과 경기 출전 등 특혜를 약속하며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원을 챙긴 광주 지역 초등 학교 야구부 감독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8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아동학대 등 혐의 로 기소된 야구부 감독 A (40대)씨에 대한 첫 재 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20-2021년 학부모 10 여명으로부터 총 8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 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학부모들에게 초등학생 자 녀가 중학교를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거나 경기 출전을 보장하겠다는 등 각종 특혜를 주겠 다며 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재영기자

+

등록번호: 2023-광주광산-0025

'그물망 공사' 당일 제석산 구름다리서 또 추락사

올해 3번째…2017년부터 8명 사망

광주 남구가 제석산 구름다리 추락 사고를 막 기 위한 공사에 들어간 당일 또다시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 시14분께 남구 진월동 제석산 구름다리에서 A 씨(40대)가 추락했다. A씨는 사람이 쓰러져 있 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인 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한편제석산구름다리에선지난달 20일에도 40대

대출상품비교

가추락해부상을입었다.앞서4월과2월에도각각3 ()대와 40대가 떨어져 시망했다. 1999년 설치된 이 보 행교는 인근 산등성이를 연결하는 구조물로 2017년 첫 사망사고 이후 현재까지 총 8명이 숨졌다. 관할 지자체인 남구는 잇따른 사고의 근절 대책 중 하 나인 추락 방지망 설치 작업에 이날 착수했다.

남구 관계자는 "다리 하단에 설치하는 작업 이라 별도의 출입 통제 조치는 고려·실시하지 않았다"며 "9일부터 사람들이 다리 위로 넘어 가는 곳에 철조망을 두르는 방식으로 사고를 예 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성학기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쉽고 빠르게 승인 가능한 씨엔에스 주력 상품 리스트!

⊙ 사업자대출 정책자금 1억한도

ⓒ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010-3929-1403